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교체 확정

승선 못했던 선수들 기회 얻나?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한 파울루 벤투 감독이 13일 한국을 떠났다. 이에 따라 대표팀 감독 교체가 확정된 가운데 그간 뛰어난 기량을 갖추었고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기회를 얻을지 주목된다.

벤투 감독은 13일 오후 한국을 떠나 고국 포르투갈로 향한다. 벤투 감독은 역대 2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와 계약 기간 등 이견 끝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차기 감독이 누가 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새 대표팀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벤투 감독은 카타르월드컵을 목표로 조직력과 전술을 다지기 위해 비교적 한정된 범위에서 선수들을 선발해왔다.

13도움으로 맹활약한 김대원을 비롯해 국내 무대 복귀 첫 해 14골을 터뜨린 수원FC 이승우 등이 대표팀에 승선할지 주목된다.

우, 박지성 등이 대표팀 승선을 노릴 만한 자원이다.

K리그 울산현대를 떠나 나란히 독일 분데스리가로 향했지만 소속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준과 이동경도 기량을 회복한다면 대표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황선홍호에 포함돼있는 독일과 이현주, 박규현, 홍윤상 역시 대표팀이 욕심낼 만한 자원이다. 벨기에 프로 축구 KAA 헛트에서 활약 중인 홍현석도 있다.

새 감독의 철학과 스타일이 중요해졌다. 새 감독이 어떤 전술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대표팀 선수들의 면면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뉴시스

벤투 감독 선택 못받았던 김대원·이승우 '주목' K리그 우수 선수·해외파·홍선홍호 등 관심 새 감독 전술 스타일 따라 면면 달라질 가능성

이 과정에서 일부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과 소속팀 활약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지 못했다.

올해 K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던 오현규, 양현준, 조영욱, 엄원상, 허웅준, 강성진, 고영준, 황재원, 박용우, 이규성, 고재현, 정재희, 설영

“유소년 골프 발전 지속 힘쓸 것”

박세리, R&A 주관 골프 포럼서… “원석 찾는 일 중요”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가 지난 9일 싱가포르 타나메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영국왕립골프협회(R&A) 주관 아시아골프리더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골프리더스포럼 제공)

남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아시아의 골프를 더욱 발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계기가 됐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골프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더 성장해 나가려면 주니어 골프로 집중해야 한다. 특히 주니어 골프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생활 스포츠로 많이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이후 LPGA 신인왕은 한국(한국계 리디아코 포함 8명)과 태국(3명) 선수가 독자지해오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R&A 주관 포럼에서는 여성 골프 인구 증가의 중요성과 포용적인 골프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여성 골프 리더십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R&A 재키 데이비슨(Jackie Davidson) 아시아와 도미니 월(Dominic Wall) R&A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관리사, 박세리 감독, 가천대 김순영 교수 AGLF 박용 사무총장 등 18개국 80여명의 골프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시아골프리더스포럼(AGLF)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자골프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과 12개국 13개 골프 단체와 함께 레이디스 아시아 투어(LAT) 시리즈를 확대하기 위한 주제 발표를 했다.

박용 AGLF 사무총장은 “2024년에는 LAT시리즈의 기존 5개 대회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홍콩 등에서도 새로운 여자골프 대회를 창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국 협회들의 회원 가입과 연결을 통해 통일된 Ladies Asian Tour(LAT) 시리즈의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45)가 “유소년 골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세리는 지난 9일 싱가포르 타나메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영국왕립골프협회(R&A) 주관 골프 포럼에서 “지금 프로 투어에만 많이 집중돼 있지만 원석을 찾아서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6승의 아시아 최고 선수로 활약한 박세리는 “현역 시절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말레이시아의 골프로 많은 기여를 하였던 분이 오셔서 저에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줬다”며 “제가 한국인이지만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조심히가 다치지 마”

EPL 복귀 손흥민에 팬들 200명 배웅

토트넘 복귀 후 26일 리그 경기 출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복귀하는 손흥민(30)을 향해 축구팬들이 부상 없이 행복 축구를 하라고 격려했다.

손흥민은 13일 영국 런던으로 떠나기 위해 오전 9시17분께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했다.

출국장에는 손흥민 팬 200여명이 도열했다. 일부 팬은 착용한 마스크에 “조심히가, 다치지 마” “행복(행복 축구)하자” 등 문구를 적었다.

빨데 안경에 긴 코트를 입고 나타난 손흥민은 도착하자마자 팬들의 사인 요청에 응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유니폼과 토트넘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며 팬들과 인사를 나눈 뒤 출국했다.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역대 2번째 원정 16강을 달성한 손흥민은 지난 7일 선수단과 함께 귀국해 8일 청와대 환영 만찬에 참석했고 이후 휴식을 취했다.

토트넘으로 복귀한 손흥민은 오는 26일 브렌트포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를 전망이다. /뉴시스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팬들과 취재진이 손흥민 선수의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도선관위, 내일 전북체육회장선거 투표

전주교대 황학당서 후보자 소견발표 후 오후 2시 30분 투표 시작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주교대대학 교황학당에서 전북체육회장선거 투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투표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투표 전 오후 1시40분부터 후보자별로 10분씩 소견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인은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가야

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선거인이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고,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표가 끝나면 같은 장소에서 개표가 진행되며, 개표 종료 후 선관위로

부터 개표결과를 인계받은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투표소 위치와 유의사항, 투표용 및 개표결과 등 체육회장선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지방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https://nec.go.kr/kocvote/main.htm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민선 2기 전라북도체육회장에는 기호1번 정강선(현 체육회장), 기호2번 김동진(전 전북체육회 부회장) 두 후보가 출마했다.

/뉴시스

‘밴쿠버 숲’ 김연아,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명예대사 위촉

‘퇴계여왕’ 김연아(32)가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명예대사에 위촉됐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는 13일 “선수 시절 캐나다와 맺은 특별한 인연으로 주한캐나다대사관의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명예대사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타라모 모웨이 주한캐나다 대사대리는 서신을 통해 “수교 60주년에는 양국의 두터운 우정이 빛을 발하고 캐나다가 품은 다양한 매력과 면모를 한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에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의 전설이 된 업적과 캐나다에서 보낸 오랜 시간 그리고 수많은 소녀와 여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용기와 영감을 주는 김연아님이 캐나다 명예대사 역할을 해준다면 많은 캐나다인들이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제안했다.

김연아는 “캐나다에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은 곳이다. 선수시절 오랜 시간 훈련을 한 곳이기도 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곳도 바로 캐나다”라며 “이런 인연 덕분에 2010 밴쿠버 올림픽 당시에 캐나다분들로부터 큰 응원을 받은 특별한 기억이 있다.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가진 캐나다의 명예대사로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